

사대부 시선에 갇힌 조선여성의 진짜 모습

‘그림으로 읽는 조선 여성의 역사’

강명관 지음



인터넷에 ‘베이글녀(베이비 페이스와 글래머러스를 합한 말)’를 치면 술한 기사와 사진이 올라온다. 각선미가 빼어난 다리를 뜻하는 ‘꿀벅지’ 말은 여성 비하 논란에도 불구하고, 섹시함을 상징하는 유행어가 된 지 오래고 남성들은 열광한다.

서구 문화가 빠르게 유입되면서 여성의 섹시함을 공개적으로 칭찬하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된 탓일까. 적어도 강명관 부산대 한문학과 교수의 ‘그림으로 읽는 조선 여성의 역사’를 보면 조선시대도 다르지 않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현대 여성들의 패션을 미니스커트와 탑, 핫팬츠라고 한다면 조선시대 여성들의 미적 표시는 상체의 핏기만을 겨우 가릴 정도로 작은 저고리에 팔목에 꼭 맞을 정도로 튼이 좁은 소매, 핏기까지 올라간 넓은 치마끈이었다.

오죽했으면 이덕무는 “화장이며 장신구, 옷에서 유행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창녀(娼妓)들의 여유같은 아양에서 나온 것이다. ... 규방의 부인들이 갖가지 기생 차림을 하니 빨리 그것을 고쳐야 할 것이다.”고 한탄했다고 적었다.

남성도 다르지 않다. 유교적 가부장제가 엄격했던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더한 듯 보인다. 저자는 행상, 주모, 기녀 등을 그린 수많은 미인도 등을 제시하며 사대부 남성의 시선과 성적 욕망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음을 지적한다.

그는 “조선시대 여성의 시각적 이미지 역시 그것을 제작하는 남성의 욕망과 의도를 따라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한다.

당시 여성 이미지 제작자가 사대부 화가건, 아니면 도화사(圖畵署) 화원(畵員) 혹은 민간의 화원이건 남성이라는 점을 들었다.

아모레퍼시픽재단의 지원을 받아 출간된 책은 조선시대 그림 속 여성 이미지의 비밀을 추적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연화, 미인도, ‘삼강행실도’ 같은 판화 등 150여 점의 그림이 시대와 그 저변의 권력관계를 읽어내는 텍스트로 활용되고 있다. 그림 속 여성이라는 대상 위에 베일처럼 드리워진 사대부 남성의 시선과 욕망을 읽어내고 걷어냈을 때 조선 여성의 진짜 모습을 복원할 수 있다는 게 저자 주장이다.

저자는 책에서 현존하는 초상화 2점으로 어렵잖이나마 고려 여성의 얼



신윤복 작 '단옷날의 개울가'

골과 지위를 살펴본 뒤 조선 시대를 전·후기로 나눠 살펴보고 있다.

우선, 자료가 워낙 드물어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저자는 고려시대의 경우 “고려 여성이 조선 여성에 비해 지위가 높았다.”고 추론한다.

‘공민왕과 노국대장공주상’이라는 초상화의 남성과 여성이 한 화면에 그려졌고 그 모습도 서로 대등하게 바라보는 형태라는 점을 근거로 내세웠다. 조선시대에는 초상화·미인도·목판화·연화도·계화도 등 5종류의 회화를 분석해 유교적 가부장제 하의 여성의 지위와 삶을 살펴보고 있다.

저자는 조선 초기 여성의 존재는 남성에 대한 종속적 존재로, ‘윤리’라는 이름으로 가장 깊숙하고 은밀한 공간에 ‘유쾌’때 양로연 등의 회화에서 생략되거나 사라지는가 하면, 잘난 남자의 부록으로만 존재했다고 지적한다. 그러면서도 남성의 성적 욕망에 대한 미적 표현물로 존재했던 ‘미인도’를 뒤집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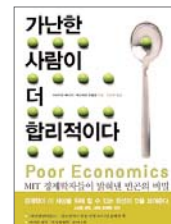
특히 김홍도의 ‘여자 엮보기’, ‘길거리에서’, 신윤복의 ‘단옷날의 개울가’ 등을 뜯어보면서 성적 욕망 대상으로 존재하는 여성상을 끄집어내다가 하면, 신윤복의 ‘후원유연’을 보여주면서 가부장제 남성의 성적 욕망이 여성의 예능 노동과 성을 수탈했음을 언급한다. <휴머니스트·2만3000원>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가난한 사람들을 이해 못하면 빈곤 해결도 없다

‘가난한 사람이 더 합리적이다’

아버지트 배너지 의 지음



정부의 복지비 지출은 매년 늘어나고 있음에도 양극화는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 가난한 사람은 더욱 조를 리고 정부 지원 효과는 미미하기만 하다.

‘가난한 사람이 더 합리적이다’ 책은 경제적 합리성에 포커스를 맞춰 빈곤 문제를 접근하고 있다. 세계적 경제개발학자 아버지트 배너지와 에스테르 뒤플로는 “가난한 사람들의 현실, 생각, 행동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빈곤 해결도 없다”는 생각에서 빈곤 문제의 실상과 세계적 빈곤 문제에 맞서 싸우는 방법, 대안을 1부와 2부로 나눠 제시하고 있다.

‘가난한 사람들은 왜 아이를 많이 낳을까?’, ‘무료

예방접종도 받지 않는 이유’ 등 15년간 40여개 나라의 빈곤 현장을 누비며 실시한 다양한 연구 결과도 눈길을 끈다.

1부에서는 빈곤층이 구매하는 상품이나 자녀 교육 방식, 자녀 수 등을 알아내 그들이 사는 법을 탐구하고 2부에서는 시장과 제도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본다.

그들이 돈을 벌릴 수 있는지, 정부의 빈곤 대응책은 무엇인지, 어떤 상황에서 지원이 실패하는지를 찬찬히 들여다보면서 가난을 개인의 무지, 게으름의 탓으로 여기는 시각을 비판한다.

<생각연구소·1만7000원>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오늘날 우리는 왜 뱀파이어에 열광하나

‘뱀파이어의 매혹’

장 마리니 지음



‘트와일라잇’, ‘벳미인’, ‘박쥐’

몇년 사이 화제를 모았던 영화들의 주인공은 모두 뱀파이어였다. 영화 뿐 아니다. 문화와 비디오 게임, 만화 등 우리가 접하는 다양한 장르 속에 뱀파이어는 살아 있다.

뱀파이어에 대한 모든 것을 담은 책 ‘뱀파이어의 매혹’이 출간됐다. 책을 쓴 장 마리니는 프랑스 스타달 대학 명예교수로 뱀파이어 연구의 권위자로 꼽히는 인물이다.

책은 ‘전설 속의 뱀파이어’, ‘문학 속의 뱀파이어’, ‘영화와 예술 속의 뱀파이어’, ‘뱀파이어에 대한 현대의 신화’ 4부로 구성돼 있다.

첫번째 질문인 ‘뱀파이어란 무엇인가?’를 시작으로 ‘뱀파이어가 사회·정치적 의미를 뭘 수 있는지’ 등 모두 50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한다.

저자는 신화와 전설, 고문서, 문학, 영화 등 수백편의 작품들 속에 등장한 뱀파이어의 존재를 신화학, 역사학, 정신분석학 등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1725년 뱀파이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한 이후 인류가 끊임없이 뱀파이어에 매혹된 가장 큰 이유가 ‘그 삶과 죽음의 중간자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문학동네가 올해부터 펴내기 시작한 인문록 총서 ‘엑스 컬트라’ 시리즈 중 한권이다.

<문학동네·1만60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더욱 강하게 지켜야만 했던 시간들

‘해피버스데이 투미’

박영민 지음



광주 출신으로, 2007년 ‘문학·선’으로 등단한 시인 박영민의 시집.

꽃게를 비롯한, 조개·조개바·홍게 등을 비롯해 일상의 모든 것을 소재로 삼아서일까. 갈수록 어려워져 가는 현대 시의 흐름과는 사뭇 다르다. 쉽게 읽고 단순해 넘어가지지만 가볍다고는 느껴지지 않는다.

김춘식 동국대 교수는 “쉽게 상처 받을 수 있는 내면을 지녔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 강하게 자신을 지켜야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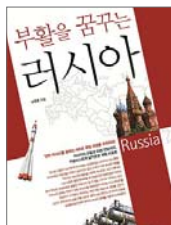
했던 시간들의 무늬가 새겨져 있다.”고 썼다. “혀 깨물고 죽은 조개의 말’이나 ‘맞선, 스테이크, 정육점 그리고 죽었다 깨어나도 암마처럼’,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걸려온 전화’, ‘막장 드라마’ 등 제목부터 심상치 않은 ‘짧음’을 느낄 수 있다. 시적 대상을 찾아낸 뒤 맛깔나게 비유하는 기법은 재치가 넘쳐 입가에 미소를 번지게 한다. <천년의 시작·9000원>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러시아 가치·푸틴 집권에 대한 해석

‘부활을 꿈꾸는 러시아’

남현호 지음



막연하게만 알고 있던, 언론에서도 비중있게 다루지 않은 탓에 오히려 너무나 모르는 러시아를, 객관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진단했다.

보성 출신으로 연합뉴스 Moskva 특파원을 지낸 남현호 기자는 과거부터 미래까지 러시아의 모습을 알기 쉽게 풀어냈다.

저자는 무한한 자원을 가진 러시아의 가치를 비롯해 강한 러시아를 주장하는 푸틴 집권 시기에 대한 분석

와 함께 우리가 몰랐던 러시아와 독서·꽃·예술을 동경하는 국민 특성도 다양한 사례와 사진을 곁들여 엮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양국의 교역 규모가 증가하는 데다, 한반도 정세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러시아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해석이 필요할 때라고 강조하고 있다. <다우·1만7000원>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고통과 설움의 세월... 길 위에서 만난 어머니들

‘어머니전’

강제운 지음



제주도 동문시장에서 사십 삼년째 활어 좌판을 열고 있는 할머니는 나그네에게 살아온 이야기를 주섬주섬 들려준다.

‘학교에 땀졌으면 동네 반장은 했을 건데’ 딸은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엄마 때문에 학교 문턱도 넘지 못했다. 생선 장사로 여섯 남매 무탈하게 키워낸 할머니는 ‘사람은 재산은 없을 망정 신용은 있어야한다’는 이야기를 들려주며 나그네에게 국밥 한그릇을 사 먹인다.

고향 보길도에 찾집 ‘동천다려’를 열고 다양한 글을 써왔던 ‘보길도 시인’ 강제운씨가 ‘어머니전-세상의 모든 어머니는 소설’을 펴냈다.

찾집을 접고 2006년부터 ‘나그네’가 돼 200여곳이 넘는 섬을 떠돌고 있는 그는 길 위에서 만난 수많은 ‘어머니들’의 이야기를 갈무리해 책으로 만들었다.

책은 ‘아들이 장롱건 같이 잘 생겼다’ 자랑하는 보령 효자도의 어머니, ‘빛도 다 갖고 살만하니가 덜컥 앞에 걸렸슈’라며 답답하게 이야기하는 보령 육도의 어머니 등 ‘내가 세상 산 이야기를 소설로 쓰면 열권은 될 것’이라는 세상 어머니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투박한듯한 느낌으로 세상 어머니들의 모습을 담아 낸 화가 박진강씨의 그림이 함께 실렸다.

<호미·1만50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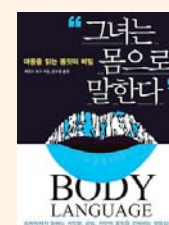
신간

▲김용택의 어머니=올해 단단 30주년을 맞는 ‘섬진강 시인’ 김용택이 평생 농사를 지으면서 땅과 벗하고 살아온 어머니 박덕성 여사의 일생을 정리한 책이다. 김 시인이 자기 시의 원 주인이자 시원(始原)으로 꼽은 인물은 바로 어머니로, ‘양글이 양반’으로 알려진 어머니의 수많은 일화가 황현만 사진작가의 사진과 함께 실렸다. <문학동네·1만4000원>

▲시몬 베유 노동일지=프랑스 사상가이며 노동운동가인 시몬 베유의 삶과 사상을 다룬 책. ‘시몬 베유의 삶과 현실’, ‘시몬 베유의 이상과 작품’ 등으로 나눠 그의 삶과 겪었던 현실의 순간을 보여주는 한편, 사후 발표된 여러 글을 통해 그의 사상의 깊이를 들여다보고 있다. <리즈앤북·1만6000원>

▲마크 주커버그=2010년 ‘타임’지 올해의 인물로 선정된 주커버그를 소개한 책으로, 지난해 10월 발행한 책의 개정판. 페이스북 본사 담벼락 곳곳에 쓰여진 기업정신과 성장기를 다루면서 페이스북 내부 모습과 페이스북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 등을 담았다. <해피스토리·1만5000원>

▲조금 다른 지구마을 여행=판에 박힌 배낭여행이 싫다며 전 세계 각지의 NGO로 여행을 떠났던 저자 이동원씨의 이야기를 다룬 책. 베트남, 캄보디아, 멕시코, 에콰도르, 페루, 볼리비아, 팔레스타인까지 7개월간의 여행 기록이 고스란히 담겼다. 지구마을의 일원



으로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예담·1만3800원>

▲디자인 유랑 in Europe=조정전문가 윤호준씨의 세계의 조정건축도시공간을 소개한 디자인서적. 영국·스웨덴·덴마크·독일·네덜란드·프랑스 등의 주요 조정·건축 현장을 7년에 걸쳐 둘러본 경험을 바탕으로 엮어냈다. 700여장의 사진 뿐만 아니라, 한정된 시간 안에 둘러보아야 하는 여행객 사정을 감안한 배경 지식과 여행 팁도 적어놓는 배려가 눈길을 끈다. <조경·2만19000원>

▲그녀는 몸으로 말한다=‘마음을 읽는 몸짓의 비밀’이라는 부제가 붙은 책으로, 제임스 보그는 우리가 몰랐던 몸짓의 비밀을 풀어주고 먼 거리에서 사람들의 자세, 제스처, 얼굴 표정만 봐도 그들이 진심을 말하는 지 심각한 거짓말을 하는 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몸짓 언어에 대한 연구 사례, 정치인이나 연예인 등의 몸짓 언어 이야기는 읽는 재미가 쏠쏠하다. <지식갤러리·1만3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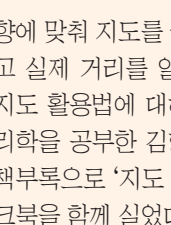
▲통하면 아프지 않다=프로레슬러 김남훈, 칼리스트 김규환, 탤런트 김여진, ‘오마이뉴스’ 대표 오연호, 만화가 강풀, 노동 전문가 하종강, 영화감독 김조광수, MC 김재동 등이 소통하면서 고민을 나누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등을 들려준다. 청춘에 대한 고백, 조언과 충고 등이 담겨 있다. <북스코프·1만3000원>



▲똑같이요=아이와 부모와 함께 온 가족의 님은 모습을 찾아보며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그림책이다. 씩씩한 눈은 아빠만 똑같이, 낮잠 자는 모습은 엄마만 똑같이, 그림 그리기 좋아하는 건 삼촌과 똑같다며 행복해하는 주인공의 모습이 인상적이다. 유진씨가 글과 그림을 맡았으며 이탈리아에서도 출간됐다. <한림출판사·9000원>

▲우리반 오징어 막두김말이=아이들의 관심사 중 하나인 별명을 소재로 한 초등학교 저학년용 동화책이다. 반 아이들에게 기본 나쁜 별명을 붙여주는 호성이 때문에 이상한 별명 짓기가 유행처럼 번지고 아이들은 서로에게 상처를 입는다. 위기를 느낀 애리는 아이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기본 좋은 별명을 짓는 대회를 열어보자고 제안한다. <좋은책 어린이·8500원>

▲변개 맞은 돼지 우익=귀여운 아기돼지 우익은 천둥 번개가 치던 캄캄한 밤에 번개를 맞고 번쩍번쩍 빛나는 전기돼지가 되어 버린다. 우익의 주인공 농장집 식구들은 전기



어린이 책꽂이

돼지가 된 우익을 요리할 때 전기 믹서기로 사용하고, 장난감 기차를 작동시키는 건전지로 쓰는 등 다양한도 부러먹는다. 지쳐버린 우익은 농장을 탈출해 전기 가오리 라이아를 만나 새로운 꿈을 꾸게 된다. <험양사·1만원>

▲지도는 보는 게 아니야 읽는 거지! =주인공 윤이와 가족들을 통해 아이들이 지도와 친숙해 지도를 해주는 그림책이다. 방

향에 맞춰 지도를 돌려보는 법, 축척 표시를 보고 실제 거리를 알아내는 등 일상생활에서의 지도 활용법에 대해 들려준다. 서울대에서 지리학을 공부한 김향숙씨가 쓴 동화책이다. 별책부록으로 ‘지도 읽는 법과 친해져요’라는 워크북을 함께 실었다. <토도북·1만2000원>

▲대초원=생물의 서식지별 생태를 알려주는 ‘라이프 사이클 시리즈’ 중 한권이다. 광활한 대초원에서 살고 있는 다양한 생물의 탄생과 성장, 먹이사슬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곁들였으며 생물의 실물 사진을 실어 생생함을 더한다. <RFK·1만1000원>